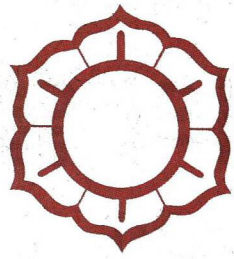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2년
12월 1일
일요일
제39호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음
을 깨치면 곧 진리를 깨친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몇 일체 사물을 알려고 구할
것인가. 다른 이의 마음을 찾고 알려고 하기 이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활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종단발전 위한 승단 대 토론회

9개 위원회 설치, 종단 운영에 전종도 참여



종단발전을 위한 승단 대 토론회가 전국 스승님들이 참여하여 통리원에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동안 철야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종단발전을 위한 승단 대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신임 통리원장을 비롯 제 13대 집행부의 종단운영방식에 큰 줄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공 통리원장은 "종단의 운영은 전 승단이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종단 발전에 대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의를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로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총지사 법등 주교는 '스승의 재입기간과 경제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스승의 재입기간을 늘려야 건강한 승직상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전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 총지종도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기로 스승과 현직스승의 숫자가 같아지는 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였다.

특히 종법에 명시된 승직연령을 50세에서 45세나 40세까지 낮추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승단 대토론회는 종단교화발전의 침체기를 벗어나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편이 제출되었다. 특히 승단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하여 9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인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기대가 된다. 각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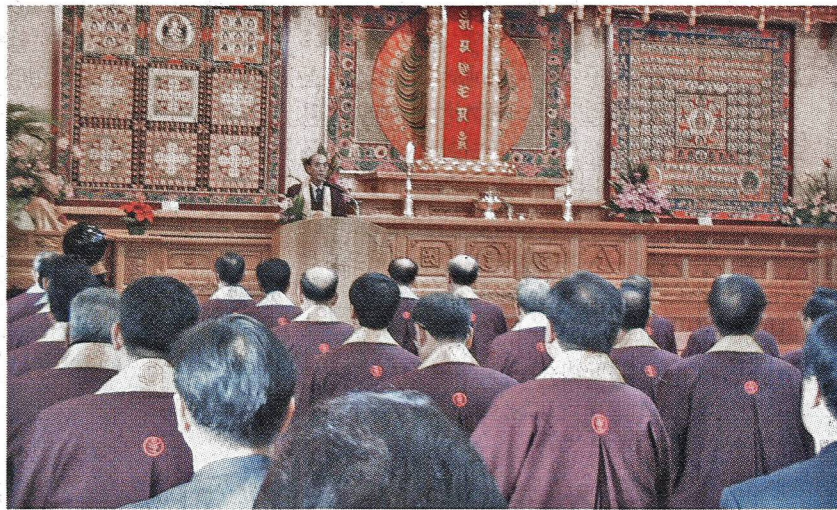
▲전당건설위원회(의장 국광사 주교 우승) - 미래성 표준-사원모델 연구와 신축 전당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조사, 신도시 사원 신축에 따른 적지심사 및 신설부지 선정 및 매입 등 ▲교화발전 연구위원회 (의장 하음사 주교 법정) - 교화 발전에 대한 문제점 조사, 신규스승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승직자 재교육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불사법요위원회(의장 실보사 주교 혜암) - 불사법요집 증보판 출간, 각종 불사식순의 현대화, 49제 의식 연구 등 ▲종헌·종법연구위원회(의장 삼밀사 주교 의강) - 현실에 맞지 않은 종헌 종법 법개정(일부), 교사 자료 전산화 등 ▲

제13대 법공 통리원장 취임법회 봉행

인재양성, 종단발전 프로그램등 5개 원칙 밝혀



불교총지종 제 13대 법공 통리원장 취임식 법회가 지난 11월14일 오전9시에 통리원에서 전국의 스승님들과 서울 경인교구 신정회 교도 200여명이 참석하여 봉행되었다.

개식사, 헌화 및 훈향정공, 유가삼밀, 12대 해안 전 통리원장이임사, 법공통리원장 취임사의 식순으로 시작된 취임법회에서 법공통리원장은 5개항의 종단행정원칙을 밝혔다.

법공통리원장은 "첫째 승단의 대등단결, 대 화합의 기치를 제일의 원칙으로 종풍의 진작을 이루고, 둘째 전 종도들의 의견이 종단행정에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종단의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펼치며, 넷째 종단의 인재양성에 주력하여 인재들을 교구 대응하는 행정

을 펴고, 다섯째 승단의 교육과 재교육을 통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또한 법공 통리원장은 취임사에서 "총지종이 창종된지 어언 30여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30살이 되었지만 정신연령은 아직도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종단의 모습을 냉철히 평하며 "종단의 흥망성쇠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의 변화에 종단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며 "종단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의 종풍을 새롭게 진작시키기 위한 자정의 모습도 제일원칙으로 밝혔다. 특히 인재양성과 승단의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임 법공통리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약 3개월간 종단행정공백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신임통리원장은 각 부장 임명과 종단발전에 대한 종단기적인 마스터플랜 및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산적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또한 새로운 종풍 건강화 종풍을 세우 정통밀교를 포괄하는 불교총지종의 깃발이 길이 빛나게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시법사 밀법도량 헌공불사 봉행

부처님 진리 중생교화로 이어진 진언수행자의 수행처

부평 시법사(지성 주교) 헌공불사 법회가 지난 11월14일 12시에 봉행되었다. 전국의 스승과 교도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특정 종령은 법어를 통해 "施(배필 시), 法(법 법),의 사원 이름과 같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베푸는 곳이 바로 시법사입니다."며 사원이름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오늘의 헌공불사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지력과 일체 제불보살의 공 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당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살님들이 전당으로 가꾸고 다듬어서

밀법의 중심되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음공부와 실천수행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퇴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용맹정진만이 있을뿐이며 오늘 헌공불사를 통하여 대 신심을 일으키고 더욱 큰 서원을 세우며 용맹정진해 나가자는 법어를 하였다.

이어 법공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진언행자는 계율을 지키고 중생들에게는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며 언제나 진언을 외워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언수행자의 일상생활입니다. 그 공덕으



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모든 존재에 대해 자비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언의 영성소리가 시법사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에 울려 퍼졌으면 합니다."고 하였다.

시법사는 총기 22년 북구 부평동 정

혜사원당으로 출발하여 총기 30년 70평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총기 31년 법당 공사를 완료하여 총기 31년 11월13일 헌공불사 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로써 부평에 밀법도량은 지인사와 시법사의 밀법도량이 세워졌다.

총지캠페인

커피 대신으로

보통 가정에 손님이 오면 다과를 내어놓는다. 그런데 나오는 다과를 보면 거의가 커피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온 것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일 것이다. 그전에는 아마도 우리나라 전통차를 내놓았을 것이다.

수 천년을 지리잡고 있던 우리 차가 마침내 미국의 커피에 밀려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물론 차는 기호품이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커피를 좋아하던 우리 차를 좋아하던 탓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우리에게 품위와 깊은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던 차가 점차 자신의 자리를 잃고 서양 차에 밀리는 것이 안타깝게 여기던 중 요즘 다시 우리나라의 전통차가 강릉이나 병에 담겨져 상점에서 팔리고 있는 것을 보니 조금은 위로가 된다.

그러나 차라는 것은 마시는 그 자체와 함께 다기를 준비하고 차를 끓이는 즉 마시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차 마시는 것을 다도라 한다. 예부터 불가에서는 다도를 즐겼다. 조선조 정조 때의 고승 초의선사(草衣禪師)는 대홍사로 찾아온 추사 김정희의 부친에게 차는 홀로 마시는 것이 으뜸이며 마시고 있노라면 만감이 교차하고, 그 후 교차하는 만감이 차차 줄어들어, 맨 나중에 남는 것은 공허(空虛)뿐이고, 그리고 공허를 다시 쪼이면 성찰(省察)이 생기는데, 그 성찰을 거듭하면 나를 섬섬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해치려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고, 그 용서하는 마음은 이전에 지녔던 욕망, 집착, 손익, 타산, 선악, 고정관념을 차차 풀어주고 드디어는 사라지게 되고, 그것은 모두 명상(冥想)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다도를 선(禪)의 방편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즉 다선불이(茶禪不二)를 말했다. 우리들은 그 정도의 깊이까지는 갈 수 없지만 가끔 마셔보는 우리 전통차에는 서양차에서 느껴볼 수 없는 깊고 은은한 맛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온가족이 모여 앉아 커피 대신 우리 전통차를 한잔씩 마시면서 커피, 콜라, 피자, 치킨, 햄버거 등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서양 음식 맛에 길들여진 요즘 젊은이나 우리 어린이에게 우리의 깊고 은은한 전통차 맛을 가리켜 주는 것은 어떨까.

죽비소리

踏雪野中去 (담설야중거)
不須胡亂行 (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 (금일야행적)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눈덮인 광야를 지날 때는
이리저리 함부로 걸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서산대사>



총지종 창종 30주년 기념 만다라봉안 대법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교계대덕 여러분께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종단에서는 창종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金·胎 兩部曼荼羅를 국내 최초로 조성하여 봉안하게 되었사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 31년(불기 2546년) 12월 12일 오후 2시
- 장소 : 불교총지종 총지사(전화 : 552-1080~3)

총기 31년(2002년)12월
불교총지종 統理院長 法空 합장

사설

승단대토론회에 거는 희망

제 13대 통리원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그동안 공석과 대행체계로 이끌어온 승단의 행정체계가 안정된 모습을 갖추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지난 11월13일 승단 대 토론회가 2박3일 동안 전 승단이 모여 승단의 발전방향과 교회의 활성화 그리고 승단 내 산적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일선교회에서 느꼈던 작은 문제에서부터 승단행정의 큰 문제까지 개별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 졌던 토론 문화를 집단화 양성화 시켜 승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대토론회는 승단내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방관자적인 자세, '문제제기하면 뭐해' 하는 패배적인 사고를 버리고 승단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동안 승단발전에 대한 의견은 있었으나 집단화 되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승단대토론회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문제를 집단화시키고 공감대를 조성하여 승단 전체가 하나하나 문제해결점을 찾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13대 집행부에 돌아 왔다. 다양한 의견 중 승단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은 문제는 선후 완급을 조절하여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승단 구성원 모두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또 변화해야 살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변화할것이며 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고민할 때이다.

승단대토론회에서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보았다. 작은 희망이기에 소중하다.

개인을 앞세워 公利를 망치면 안된다

지난 10월21일 추계강공에서 제 13대 통리원장 선출이 되었다. 그리고 11월14일 정식적으로 통리원장 이·취임식을 가져 집행부가 발족되었다.

통리원장 취임 후 1달의 시간이 흘렀다. 1개월의 짧은 시간속에서 승단 대토론회를 거쳐 9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각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리원장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승단화합의 제일 원칙속에 전 종도가 참여하는 승단, 인재양성, 도제양성우선 정책과 각종 불사법요 정비 및 종헌·종법 개정 등 승단 운영에 대한 플랜을 밝혔다.

이러한 산적한 승단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 승단의 구성원이 함께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승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는 집행부의 구성 또한 중요하다. 통리원장은 몸체가 되고 각 부장들은 몸체를 이끄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속사정이 무엇인지 간에 승단이 새롭게 변화하려는 몸부림에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를 앞세워 변화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13대 통리원장이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과 구상에 승단은 물론 모든 승단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제2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주소 미확인, 불명으로 중보를

받지 못하신 교도분들은 중보사로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 02) 552-1080~3

'사회복지위원회' 첫회의 열려

구 국광사 활용방안 위한 현장 답사 각 위원회 활동 활발, 현실로 나타나



창종 당시의 정신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승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11월13일부터 2박3일간 서울 본산에서 열렸던 '승단대토론회'의 결의가 벌써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토론회에서 종헌종법연구(의장 삼필사 주교 의강)를 비롯 9개 부분 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사회복지위(의장 정법계)가 제일 먼저 지난 11월21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구 국광사에서 이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현재 휴면 상태에 있는 이 터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현재의 국광사로부터 약 5백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구 국광사는 그간 관리가 거의 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어 여러차례 그 활용에 대해 논의된 적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어 현장을 돌아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낮12시부터 오후4시까지 현장 답사와 그에 따른 의견을 교환한 사회복지위의 견해는 일단 복지관련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현장을 답사하기 전에는 양로시설 혹은 그와 유사한 시설로의 전용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었으나 현장의 규모나 주변 입지조건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시설로는 활용하기 어렵고 또 다른 대안이었던 보육시설 역시 주민의 구성비에서 유아의 수가 적어 이것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참고로 경주시의 인구는 수년째 약 29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영아는 6%정도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성건동과 현곡면 등 주거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답사를 마친후 가진 회의에 위는 답사결과에 따른 견해를 추후 서 이와 같은 의견을 모은 사회복지 승단에 상정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 의장



서울 밀인사 본존봉안 불사 법회 봉행



지난 11월25일 밀인사(주교 원승) 법당에서 서울경인교구와 충청전라교구 스승 및 교도들 200여명이 참석하여 본존봉안 불사 법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제막식 및 삼필의례, 통리원장 인사말 반야심경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법공 통리원장 인사말에서 "밀인사는 덕높은 많은 스승님을 배출한 유서 깊은 사원이며 많은 교도들이 사원을 성취하였던 사원입니다. 오늘 불단과 본존을 장엄하였으

니 스승과 많은 교도들이 진언수행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는 사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법회가 있기까지 노력하신 원승 주교와 신정회 교도 및 불단 공사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한다"고 치하하였다.

이어 원승 주교는 "오늘 이 법회를 계기로 총지종 교화발전이 표본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스승과 교도가 한마음으로 땀방울로 밀인사를 큰 사원 큰 법당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각 위원회 구성	
1. 전담건설위원회	
의장: 고문, 고문, 관성사, 법화사, 관성사, 흥국사, 덕화사, 선림사	우승: 송정하, 주신제, 법수원, 정정심, 밀공경, 대원, 보원, 심지창
2. 교화발전연구위원회	
의장: 고문, 고문, 고문, 수인사, 밀인사, 실지사, 개천사, 정각사, 총지사(총행), 삼필사(총행), 단보사(총행)	법정: 법장화, 총지종, 지선행, 인법계, 선도원, 지광수, 정법수, 원만원
3. 불사법요위원회	
의장: 고문, 밀인사, 제석사, 성화사, 총지사, 정각사, 총지사(총행), 삼필사(총행), 단보사(총행)	혜암: 원봉, 원송, 법상인, 품덕성, 인덕심, 원동성, 법의, 법
4. 종헌, 종법연구위원회	
의장: 고문, 고문, 실보사, 단보사, 정각사	의강: 수성, 최상관, 밀성현
5. 흥법, 포교위원회	
의장: 고문, 고문, 법성사, 국보사, 백월사, 혜정사, 지인사, 정심사, 건화사	지공: 대지행, 대도행, 시각학, 묘성계, 사총화, 수증원, 연등원, 지심원, 정원심
6. 사회복지위원회	
의장: 고문, 고문, 고문, 단보사, 정각사, 총지사, 밀행사, 정각사, 자석사	정법계: 서동철, 수행철, 삼지해, 정일해, 유가해, 묘성계, 지희심, 지심관, 혜안정
7. 도제양성위원회	
의장: 고문, 고문, 고문, 수계사, 단행사, 개천사, 윤천사	정인화: 불명심, 일성해, 혜산, 인주화, 자선화, 주심정, 무공
8. 재정자립위원회	
의장: 고문, 고문, 고문, 단행사, 백월사, 시법사	시정: 대관, 법계원, 법수원, 승효제
9. 총괄기획위원회	
의장: 고문, 통리원, 법장원	지성: 훈강, 인선, 화령

독서는 청소년 미래 가꾸는 감로수

불교 총지종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사 국무총리상 수상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9회 독서대상 '독서지도 교사' 부문 금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자로 동해중학교 동해중 탁상달 교사가 선정되었다.

NIE(Newspaper In Education)을 통한 독서수업, 학교문고 확충과 활용을 통한 독서교육이 인종대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학생들의 독서 의욕 고취를 위해 독서생활 기록장, 칭찬하기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평을 받았다.

현재 전국도서새물결모임 집행위 연구활동위원장과 부산지역회장

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탁교사는 "독서 교육은 결코 요란스럽거나 보여주지지도 않나 활동이 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아이들 스스로 독서는 자신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감로수요, 조미료와 같은 존재로 인식시켜야 한다."

무작정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강요가 아니라 모든 독서 활동들은 재미있고 즐거워야 하며, 학생들이 책의 맛을 알게 하는 것과 흥미가 가미된 독서활동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시상식은 오는 12월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2년 9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천사 광동구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벽룡사 박홍열 5,000	실지사 최영해 5,000	정심사 박옥란 5,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밀인사 신동의 5,000	벽룡사 오기순 10,000	실지사 최재숙 5,000	지인사 교도 36,000
개천사 손식 2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벽룡사 제애덕 3,000	정각사 강길순 5,000	지인사 유운자 6,000
개천사 이희원 10,000	밀인사 안옥진 10,000	벽룡사 조화자 4,000	정각사 김삼열 10,000	총지사 오상수 30,000
관성사 박영자 1,000	밀인사 옥근희 5,000	수인사 김동기 20,000	정각사 김옥엽 20,000	총지사 이인성 10,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이연수 5,000	수인사 김정숙 5,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총지사 장수복 1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수인사 김진 10,000	정각사 김정연 10,000	통리원 인선 10,000
관성사 최해선 2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수인사 원봉 20,000	정각사 남숙자 30,000	무명씨 5,000
관성사 현정원 100,000	밀인사 허을순 5,000	수인사 최공자 20,000	정각사 박운용 5,000	무명씨 5,000
관성사 홍순화 10,000	백월사 김강미자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박훈휘 10,000	무명씨 1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백월사 박현자 10,000	실지사 김복산 5,000	정각사 배숙지 10,000	무명씨 5,000
기로원 대관 10,000	백월사 이민자 20,000	실지사 박미선 5,000	정각사 신연자 5,000	박은숙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실지사 성대영 5,000	정각사 신영자 5,000	배윤택 1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법천사 권남순 10,000	실지사 송우섭 3,000	정각사 윤원숙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법천사 김정숙 5,000	실지사 이숙례 3,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덕화사 서영순 10,000	법천사 안정애 5,000	실지사 이화수 15,000	정각사 정희연 5,000	
밀인사 김덕배 20,000	벽룡사 김종선 3,000	실지사 장근도 10,000	정각사 조성호 20,000	
밀인사 김덕자 10,000	벽룡사 박덕서 5,000	실지사 정경자 10,000	정각사 조춘자 10,000	
밀인사 남방자 5,000	벽룡사 박옥련 3,000	실지사 주영채 3,000	정각사 황정남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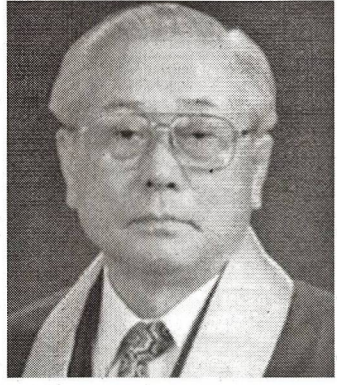
후원의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특정 종령

우리는 항상 스승된 사명감을 잊지 말고 수시로 상기해야 합니다. 교도에 시범과 모범이 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교회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명예스러운 일이다. 나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 스승의 사명을 잃고 마음을 잡기 바랍니다. 스승은 우리 총지중의 하나의 중요 모티브입니다. 스승이 잘못하면 종단이 빛나고 스승이 잘못하면 퇴전입니다. 근자에 들어 스승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

우리는 항상 스승된 사명감을 잊지 말고 수시로 상기해야 합니다. 교도에 시범과 모범이 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교회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명예스러운 일이다. 나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면 스승의 사명을 잃고 마음을 잡기 바랍니다. 스승은 우리 총지중의 하나의 중요 모티브입니다. 스승이 잘못하면 종단이 빛나고 스승이 잘못하면 퇴전입니다. 근자에 들어 스승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

종조법설집 제 129쪽을 봅시다. 선지식은 법과 같이 설하고 설한바와 같이 행하는 사람을 말함이니 자기가 먼저 믿고 살생을 하지 아니하고 계행을 지키며 회사를 행하고 널리 법을 들으며 정견을 행하고, 지혜를 닦아 행하면, 남에게 행하게 함이니 이것이 선지식입니다. (중략) 스승이 모범이 서지 않으면 스

사회에도 선후배가 있는데 종단도 위계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위계질서가 없다면 우리 종단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각성하여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운명체입니다. 중생교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선 것도 부처님의 인과법칙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바로 선지식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행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재하고 반성을

친한 친구 사이일수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스승 상호간은 법을 같이 하는 도반입니다.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글로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중생교회에 밀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의 종풍을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정신을 받들고 새로운 정신을 세워야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먼저 고치고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자기의 못된 습을 고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람질서, 계행철저, 감사의 마음이 스승의 사명이다

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단과 내가 하나라는 사명으로 충실한 교회사업에 임해주시며 합니다. 다만 생각이 많고 종단과 교도를 위해서, 先公後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 식구가 마음이 같아야 발전과 화목 있지만 각기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화목이 깨지고 가정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것이 자기의 허물을 찾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를 수행하고 닦는데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스승은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어찌 나를 닦지 않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 진심, 치심을 버리고 항상 보살의 정신으로 수행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교도들에게 설법하며 많이 교화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지중에서는 사제간과 교도와 스승이 같이 수행 정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사제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각자에 대한 예우와 항상 선후배 스승의 관계를 존중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은혜는 평생으로 버리지 말고 수원은 일사라도 가지지 말라 수원은 수원으로 풀리지 않고 은혜를 생각할 때 풀여지리라.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면 죄는 바로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의 인격도 높아지고 덕을 쌓는 것입니다. 스승으로 임명될 때 선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종단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합심합니다.

생활속의 밀교

'남' 자관(字觀)으로 하심(下心)을 ...

수행에 가장 큰 장애는 탐진치 삼독심이다. 그 가운데 특히 진심(眞心)은 '억겁(億劫)의 선업(善業)을 태워 없앤다'고 할 정도로 수행에 큰 장애요 방해꾼이다. 진심은 바로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다. 진심을 일으키는 요인은 집착에 있다. 욕탐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다. 어두운 지혜와 어리석음의 결과이다. 불교에서는 성내는 마음을 인욕으로 다스릴 것을 교설하고 있다. 이 인욕바라밀은 바로 하심(下心)에서 시작된다. 하심은 인욕행으로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마음을 조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공부를 마음공부, 하심공부라고 하기도 한다.

한 방법이다. '내게 화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각자의 모자람을 스스로 인정하라'.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 행자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수행지침이요 가르침이다. 거수동족(擧手動足)이 개성밀인(善戒密印)이요 의괘를 갖춘 것만 이 삼밀행이 아니다. 스님이 전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의밀(意密)이 되고, 구밀(口密)이며, 신밀(身密)에 다름 아니다. 마음 다스리는 지혜를 염(念)하면은 의밀(意密)이요, 되뇌이면 구밀(口密)이며, 실천행이면 신밀(身密)이 되는 것이다.

내 몸안에 있는 번뇌와 독소를 제거하는 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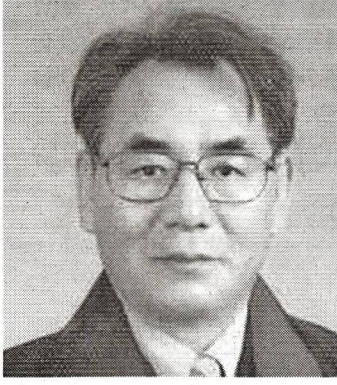
요즈음 세간에서는 베트남의 탁났한 스님이 전하는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라는 책이 화제다. 탁났한 스님은 우리들에게 화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화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며, 화를 안고 사는 것은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역설하고 있다. 화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므로 화를 잘 다스려 미움, 시기, 질망과 같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권하고 있다. 스님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 종단의 지승에게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의괘법이 있으니, 바로 '남' 자관(字觀)의 행법(行法)이다. '남' 자관은 일체 광란의 잡스러운 생각들을 모두 없애고, 내 의의 마장(魔障)을 소멸시키는 종자관법(種子觀法)이다. 금강정좌(金剛正坐)를 하고 대삼매어인(大三昧耶印)을 결하여 '남' 자관(觀)을 행하는 관법이다. '나의 몸 정수리에 범서(梵書)의 한 글자 '남' 자가 있다. 이 글자에는 광명이 두루 비추어져 마치 밝은 진주처럼 혹은 밝은 만월(滿月)처럼 비추고 있다'고 관하므로써 내 몸 안의 모든 번뇌와 진심의 독소(毒素)들을 소멸시킨다. 염승(念勝)을 행할 때 뿐만 아니라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느때 어느곳이든 '남' 자관을 행하여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일이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하라', '화가 날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라', '무의식중에 입은 상처가 화를 일으킨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지 마라',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애써 태연한 척 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면 나도 미움받는다', '화가 날 때 심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내 판단이 옳다고 100% 장담하지 마라', '속이 시원하려면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 '상대방의 화가 당장 풀리지기를 기대하지 마라', '남을 용서하는 것도 화풀이의

자는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붉은 여명을 보니 '내가 30여년간 깨달음을 얻고자 정진 수행을 하여 얻은바가 20쪽짜리 전구보다 못했구나' 하고 한탄을 하였답니다. 20쪽짜리 전구의 밝기보다는 더한 밝기를 위해 더욱 용맹정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상설법



밀행사 지공정사

제가 스승님 앞에서 무슨 설법을 할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불교 총전 경전 173쪽 無常편을 보여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불자이건 불자가 아닌 세상에 다 무상이라는 단어가 생활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월이 무상하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을 쓰고 있으나 무상에 대한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듦이 없으면 한낱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총지중은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머리를 깎고 출가한 출가승이 아닙니다. 생활불교와 불교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재가불교 재가승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몇십년 동안 세상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연으로 총지중과 인연이 되었고

그리고 무상할 것입니다. 물론 살아온 길이 다르고 경험이 다양하겠지만 인생에서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중에 이세상이 다하고 다음 세상이 와도 그다음 세상이 와도 집착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세상의 무상함을 설법하였습니다. 제행부상, 제법무아, 열반적경, 혹은 일체개고 삼법인 사법인을 설하셨습니다. 사법인이 되었건 삼법인이 되었건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은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중

가 하는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도 모두가 망념의 그림자일 뿐으로 그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열반적경(熱寂靜經)입니다. 모든 번뇌가 권 자리를 열반이라 하는데 이것은 일체 대립이 없고 모순을 초월하여 고요하고 원만하고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제행무상인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여 항상된 것이 없다는 가르침인데 이것은 범부들이 현상 세계에서 영원고 불멸을 구해도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명확한 해답입니다. 둘째의 제법무아인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사에서 집착할 수 없고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 열반적경은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 공허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이나 깨달음의 진리 세계는 영원하며 원만하고 불멸인 진리 실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 하는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도 모두가 망념의 그림자일 뿐으로 그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열반적경(熱寂靜經)입니다. 모든 번뇌가 권 자리를 열반이라 하는데 이것은 일체 대립이 없고 모순을 초월하여 고요하고 원만하고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제행무상인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하여 항상된 것이 없다는 가르침인데 이것은 범부들이 현상 세계에서 영원고 불멸을 구해도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명확한 해답입니다. 둘째의 제법무아인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사에서 집착할 수 없고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 열반적경은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 공허하고 얻을 수 없는 것이나 깨달음의 진리 세계는 영원하며 원만하고 불멸인 진리 실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호 지상설법은 지난 추계강공때 특정종령님이 스승에게 설하신 경내용과 밀행사 주교 지공정사의 설법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특정 종령은 스승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지공정사는 무상과 삼법인에 대한 설법을 요약 정리하였다.

중생은 어리석어 손에 들어오면 놓을 줄 모르고 높이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모른다

밀교전언을 하는 진언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승단에 들어와 지난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아집과 편견에 묶여 집착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들은 어리석은 우둔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생들은 영원하다고 믿고 혹은 영원성을 바라고 어리석은 집착을 통해 감각한 무명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출

어저며 사람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둘째는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결합한 것으로 실체가 없으며 요소라 하는 것들도 그 근본은 허망하며 마음이다 생각이

부처님의 법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으며 아집과 편견에서 시작되는 집착의 마음도 탐심과 진심 치심의 삼독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의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30여년간 용맹정진을 하였습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어느날 수행

부처님의 법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으며 아집과 편견에서 시작되는 집착의 마음도 탐심과 진심 치심의 삼독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의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30여년간 용맹정진을 하였습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어느날 수행

부처님의 법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으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으며 아집과 편견에서 시작되는 집착의 마음도 탐심과 진심 치심의 삼독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의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30여년간 용맹정진을 하였습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어느날 수행

불교TV 법당 무상사 삼천불 조성불사

권선문

이 마음에 행복이 있고 이 마음에 불행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맑게 밝혀 큰 행복 큰 자유 누리고저 석가모니 부처님 천불 관세음보살 천불 지장보살 천불을 모시고저 합니다.

불교TV 법당 무상사 삼천불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장 석성우 합장

불교TV 법당 무상사는 서울 관악구 봉천8동 945-2번지(2호선 봉천역3번출구 100m지점)에 신축중인 불교TV 신사옥에 건립되며 삼천불은 무상사에 모셔집니다. 신사옥은 지상7층, 지하1층으로 2002년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영상포교후원ARS전화: 060-700-1032(유료)

불교TV 법당 무상사 삼천불조성 추진위원회

전화 : (02)3270-3366~7, 2648-0108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시주받는 양지스님의 석장

신라에 불교가 수용된 것은 법흥왕 때이며, 그 후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나와 백성들의 교화에 힘썼는데, 양지스님처럼 신성한 힘을 지닌 고승도 많았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정문에서 왼쪽으로 돌아 석장동 입구에 이르면 '석장사길'이라는 팻말이 보인다. 팻말을 따라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500m쯤에 일반 주택처럼 보이는 재실이 있고, 바로 위쪽의 저수지를 지나 10여분을 올라가다보면 신우대가 무성한 곳에 석장사지 팻말이 있다. 그러나 절터의 흔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물은 여기저기 흩어진 기와조각과 축대처럼 보이는 석단의 흔적뿐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동국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632-646)때에 양지스님은 절에 제(祭)가 있을 때면 지팡이 끝에 시주할 포대를 걸어 두기만하면 그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 시주할 집에 가서 석장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었다. 그 집에서 알고 절에 쓸 곡식을 넣게 되는데, 포대가 차면 날아 돌아왔다고 하며, 그런 연유에서 그가 머무는 절 이름도 '석장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양지스님은 신기하고 괴이하여 남이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많았다. 한편으로 여러 가지 기예(技藝)를 통달하고 있어 신묘함이 비길데가 없었다 한다. 붓으로 그림을 잘 그려 영묘사의 장육삼존상과 천왕상, 전탑의 기와와 천왕사탑 밑의 팔부신상과 법림사의 주불삼존, 좌우금강신 등이 모두 그가 만들고 그린 것이다. 영묘사와 법림사의 현판도 썼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조각은 물론 그림, 글씨에도 능통하였던 것 같다.



악귀를 악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승화

또, 영묘사의 장육삼존상을 만들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앞 다투어 진흙을 나르며 불렀다고하는 가사는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1285년경)만 하더라도 시골 사람들이 방아를 찧거나 일을 할 때에 즐겨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인생은 서러워라, 서러워라 우리들은, 공덕 닦으러 오네.」 지금도 시골사람들이 방아를 찧을 때나 일할 때에 모두 이 노래를 부르니 대개 이때 시작된 것이다. 영묘사 장육삼존상을 처음 만들 때의 비용으로 곡식 2만 3천 7백 석이 들었다. 양지 스님을 다음과 같이 기리고 있다. 「재 마치니 법당 앞의 석장은 한기운데, 향로를 손질하여 단향(檀香)을 피우네. 남은 경 다 읽으니 더 할 일 없어, 동근 얼굴의 소상을 만들어 합장하고 보리라.」 이와 같이 삼국유사 제4권 의해(義解) 제5에는 양지스님과 석장사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으나, 석장사지를 발굴하기 전까지는 스님의 예술 세계는 물론 절터에 대한 확실한 단서조차 잡지 못하다가 1986년과 1992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의 2차례에 걸친 조사에 의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석장사는 7~8세기에 걸친 암자 규모의 산지가람이었으며, 고려, 조선시대까지 시대를 달리하면서 건물이 축조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대(前代)의 석재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양지스님이 주석할 당시의 건물 유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수많은 탑상문전은 전탑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알려 주었고, <삼국유사>에 3천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유물이기도 하다.

특히 소조 보살상과 신장상 연기법승명탑상문전들은 양지스님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이 석장사였음을 확인시켜 준 유물인 '석장(錫杖)'이라고 쓴 목서 자기가 출토된 것은 발굴의 최대 성과였다.

그 결과 이제까지 삼국유사와 민간에 구전되어 오던 석장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양지스님의 예술세계에 대한 수수께끼를 일부나마 풀 수 있게 되었다.

(신라문화진흥원 양지스님과 석장사 답사기에서)

허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수명에 별 이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앤아버/UPI연합)

■마늘 양파 전립선암 예방 효과 크다
마늘, 골파, 양파 등 파 종류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을 50-7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국립암연구소(NCI)와 중국 상하이(上海) 암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은 NCI회보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상해에 사는 전립선암환자 238명과 정상인 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정보 다이제스트

■남에게 베푸는 사람 오래 산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오래 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심리학 전문지 '심리과학'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 높은 것으로 밝

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수명에 별 이익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앤아버/UPI연합)

■마늘 양파 전립선암 예방 효과 크다

마늘, 골파, 양파 등 파 종류를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을 50-7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국립암연구소(NCI)와 중국 상하이(上海) 암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은 NCI회보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상해에 사는 전립선암환자 238명과 정상인 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가을산이 들려준 이야기

올 가을 유난히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산이 아름답습니다.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무들이 단풍되고 낙엽이 지는 것이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닐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산책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숲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곧고 굽은 키가 큰 나무도 있고 비뚤고 작은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큰 나무가 키 작은 나무를 무시하거나 잘난 체 하지도 않고, 키 작은 나무가 키 큰 나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뿐이 아닙니다. 숲에 있는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엔 바람에 쓰러진 채 누워있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반이상이나 뿌리가 드러나 죽은 줄로 알았던 나무는 자제히 보니 누워서도 가지를 뺀고 잎을 싹 틔우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무라면 어떨을까? 바람에 쓰러져 뿌리가 지 뻘질 정도로 되었을 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나무들을 보고, 이것이 생명의 본래적인 생존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력이란 바로 이런거구나!' 하는 깨달음에 가슴 벅찬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자연은 우리에게 진리를 살라고 있다는 것을 확

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관찰하고 얻어 진 통찰력으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단풍되고 낙엽지면서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 진리를 살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 나무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가을산은 우리에게 집착을 여의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초록색에 집착하지 않고 붉게 변하기도 하고 단풍든 나뭇잎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씩 하나씩 떨어어납니다. 아무것도 고집하지 않고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슬프지 않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

저는 붉게 물든 가을산이 황혼의 아름다운 같이 느껴집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인생의 성숙함이 붉게 물든 가을산이 황혼의 아름다운 같이 느껴집니다. 다. 황혼기에 접어든 인생의 성숙함이 붉게 물

든 가을산과 닮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이 녹아있는 단풍처럼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의 새싹이나 여름날의 싹과 다름없이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고 겨울의 앙상한 나무도 똑같이 소중한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때 순간 아름답고 소중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젊음을 좋아하고 늙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사계절처럼 우리 인생도 자라서 성인이 되고 중년을 지나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또한 법칙입니다. 가을산은 저에게 인생은 모두 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주영 불교여성개발 연구과장)



어느만큼 보이고 느낀다

만다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다라란 당의 현장 이전의 구역(舊譯)에서는 법단, 도량으로 번역하였고, 신역(新譯)에서는 운원구족(輪圓具足), 취집(聚集), 발생(發生)이라고 번역한다. 구역에서 법단, 도량으로 번역한 것은 수많은 불·보살·제전들을 복합적으로 상징하고 그들의 서원, 공덕, 묘혜(妙慧), 자비를 응축시킨 결정체를 한 곳에 모신 우주적인 성스러운 세계를 축소한 단(壇)과 같은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편, 신역에서 운원구족이라 한 것은 여러 바퀴살이 속 바퀴로 모여 둥근 수레바퀴를 이루는 것과 같이 모든 법을 원만하게 갖추어 결함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둘째, 만다라는 본질이 갖추어져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본질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생'이라고 했고 셋째, 취집은 삼라만상이 한데 모여 있다는 의미인데, 모든 부처가 한곳에 모여 있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이 때는 주로 만다라가 도회화(圖繪化)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만다라라는 낱말이 본질이 소유된 상태라고 하는 완료형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만다라는 모두 본질적인 것의 표출(表出)임을 나타낸 것임을 가르쳐 준다. 불교에서 본질적이라고 함은 불의 자내증(自內證,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며 만다라는 결국 불자 내증의 경지의 그림에 의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만다라는 금강계와 태장의 양분법, 부회만다라(部會曼荼羅)·일존만다라(一尊曼荼羅) 등의 특수만다라로 나눌 수 있다. 법신불을 본질, 이치적인 면에서 인식·파악하고 또는 구상화한 것이 태장만다라이고, 활동 전개의 면에서 인식·파악하고 구상화한 것이 금강계만다라이며, 결국 이 둘은 동시적이고 하나를 양 방면에서 본 모습이다. 그리고 금강계든, 태장이든 그 중 일부부분만 드러내어 인식·파악하고 구상화한 것이 특수만다라이며, 나아가 금강계·태장을 인식 파악하기 위한 표현 상징의 형태에서 사중만다라가 있다.

동림기획/동아상사

(Orient Communications)

대표 修正 김 동 운
관성사 교도

인쇄 전문 업체

카타로그, 브루슈어

카렌다(일력, 주력, 월력)

리플렛, 팜플렛

라벨, 스티카

전단, 포스터

인하BOX

서적(양장형, 무선)

힐택, 행가

다이어리, 수첩

Sample Book

청첩장, 연하장

기획, 판촉물, 기타 인쇄물 일체

서울시 중구 황림동 25-15 삼우빌딩

대표전화 : (02)2279-6123

FAX : (02)2274-8421, H·P : 018-361-9663

e-mail : orient-kim@hanmail.net



총지논단

1. 만다라의 뜻

만다라(曼荼羅)는 산스크리트어로 '본질(本質)·정수(精髓)를 엮다'는 뜻입니다. 즉, 만다라는 삼라만상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만다라는 일체제법(一切諸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부처와 그것을 추구하는 보살과 그들의 무수한 권속들이 모인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역(漢譯)에서는 만다라를 '단(壇)·도량(道場)·운원구족(輪圓具足)·정정(淸淨)·취집(聚集)·원(圓)·구(球)·발생(發生)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번역은 산스크리트의 어원 해석을 바탕으로 한 '대일경소(大日經疏)'의 주석에 따른 것입니다.

이 주석서의 해석 가운데 운원구족과 같은 말은 부처의 자내증(自內證), 즉 자기의 마음 속에서 깨달은 진리의 경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대체로 만다라의 구체적인 용례로는 말...의 단(壇)·도량, 제불(諸佛)의 취집(聚集)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불보살과 명왕들의 취집(聚集)을 그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 만다라는 고대인도에서 흙으로 단을 쌓고 그 단 위에 신상(神像)을 안치하거나 신상을 그려 신을 초빙하여 공양하는 수법(修法)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밀교에 수용되어 토단(土壇) 위에 부처와 보살과 명왕들을 모시는 것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호마라든가 공양을 올리는 밀교의식을 행할 때 토단의 만다라가 축성되고 흰가루로 선을 긋고, 때로는 채색을 하여 그리기도 합니다.

만다라의 구조는 고대인도의 왕성을 모방한 것으로 성벽(城壁)과 성루(城樓), 성문(城門)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태장계 만다라

태장계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나타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대비태장생만다라(大悲胎藏生曼荼羅)'의 준말입니다. 태장이란 문자 그대로 모태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성, 즉 여성적 원리에서 나온 발상으로서 생명의 성장과 탄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생을 얻은 태아가 모태 안에서 자라나는 성장을 도상화(圖象化)한 것이 바로 태장만다라입니다.

'태장'이란 말은 '씨', '포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장만다라는 대비(大悲)한 부처의 마음(보리심(菩提心))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과 우주가 불이체(不離一體)가 되어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 즉 교화 활동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태장만다라는 중존(中尊)인 대

일여래가 갖추고 있는 종교적 구원인 대비(大悲)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는 도식(圖式)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장만다라는 『대일경』에 설한 교설에 따라 여러 제존을 도상화(圖象化)한 것입니다. 태장만다라의 그림구조(圖式)는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방향의 방사형(放射形)으로 제존(諸尊)이 배치되어 퍼져 나갑니다. 이것은 단계를 따라 배치된 부처와 보살, 명왕, 제천, 신(神) 등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12대원(大院)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대원만다라라고도 합니다. 중앙의 중대팔엽원(中台八葉院)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만다라의 제존(諸尊)은 모두 414존입니다.

태장만다라는 3중(重)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의 중대팔엽원을 중심으로 하여 변지원(遍知院)·관음원(觀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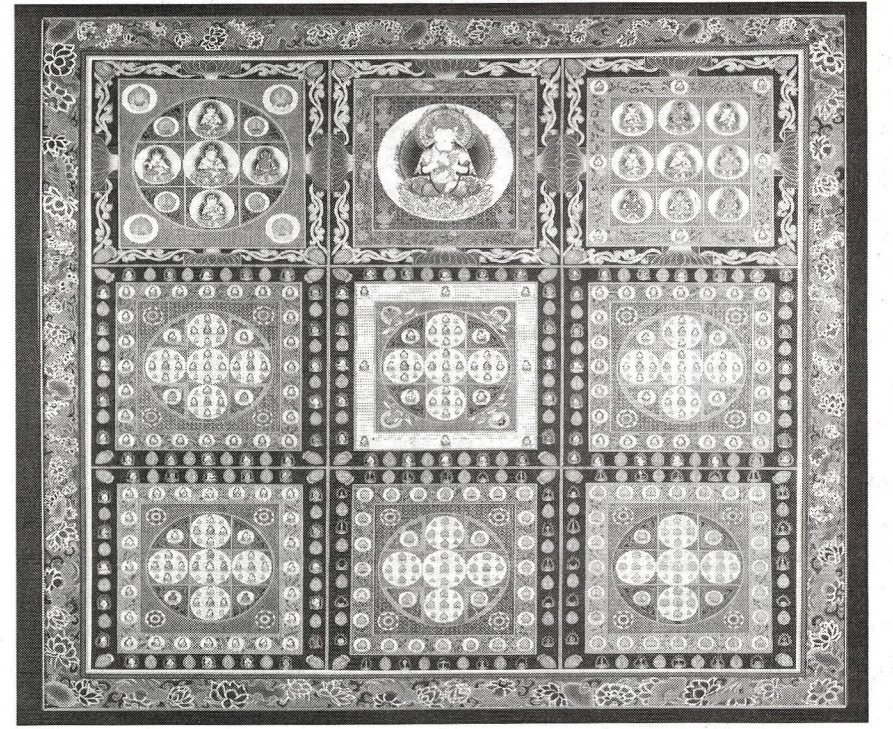
院)·금강원(金剛院)·지명원(持明院)의 4원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고, 제2중에 6대원(석가원(釋迦院)·문수원(文殊院)·허공장원(虛空障院)·소실지원(蘇悉地院)·지장원(地藏院)·재개장원(除蓋障院))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으며, 제3중에는 외금강부원(外金剛部院)이 외곽을 둘러 싸고 있습니다.

중대팔엽원과 제1중의 4대원은 보리심(菩提心)의 덕(德)을 나타내고, 제2중의 6대원은 대비(大悲)의 덕을 나타내며, 제3중인 외금강부원은 널리 모든 유정들에게 미치는 방편(方便)의 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대일경』에서 교설하고 있는 '보리심을 근본으로 하고 대비를 인(因)으로 하여 방편(方便)에 이르는 수행위(修行位)'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장계만다라는 금강계만다라와 달리 각각의 존상들이 하나의 소속과 역할, 기능들을 지니고 있는 데에 반해, 금강계는 불보살들이 모습과 형상을 달리 하여 수처에 걸쳐 등장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3. 금강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장정』의 실천철학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강계만다라는 '일체의 성취보살(一切義成就菩薩)'이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의 수행을 통해 증득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낸 만다라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대일여래를 비롯하여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만다라는 대일여래를 중존으로 하는 사불(四佛)을 중심으로 사방에 제존(諸尊)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제존(諸尊)에는 모두 금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밀교의 독특한 보살로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즉 중앙의 대일여래가 사바라라(四波羅蜜)의 수행에 의하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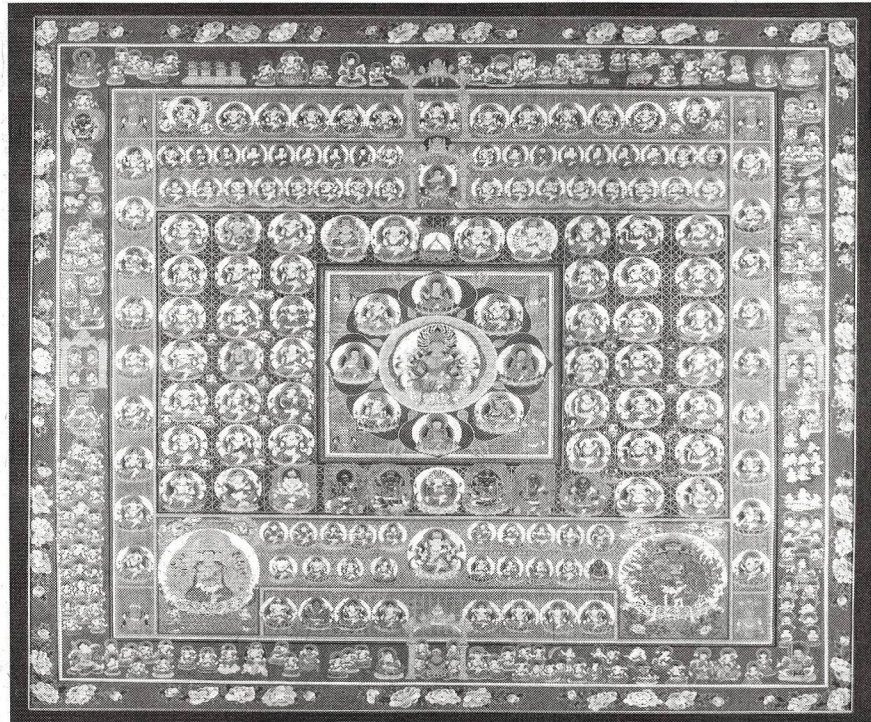
불(四佛)로 나뉘고, 이 동서남북의 아

가 중심이 되어 항삼세삼매야회(降三世三昧耶會)에 이르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다시 역순으로 항삼세삼매야회에서 성신회에 이르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구조는 여래가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후자의 역순은 수행자의 수행의 순서와 그 경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역순은 중생이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자를 과(果)로부터 인(因)으로 나아가는 하전문(下轉門) 또는 향하문(向下門)이라고 하고, 후자를 인(因)으로부터 과(果)로 나아가는 상전문(上轉門) 또는 향상문(向上門)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하전문은 보리심의 본성인 자성(自性)의 자각을 상징하고, 상전문은 수행자의 관법(觀法)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법장원 법경〉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감

알레르기 환자의 생활요법



알레르기 질환은 대기오염,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코의 가려움, 두통 만성피로 등의 증세를 보이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증상만 달해줄 뿐 원인치료와는 거리가 멀고, 천식 또한 겨울이나 환절기 또는 피로나 감기에 걸렸을 때 어김없이 찾아와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들면서 점차 고질화되는 질환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노인환자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환경오염 등으로 환자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한의학에서는 비장과 폐의 기운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깁니다. 약물 및 침치료, 훈증요법 등으로 치료하면 비염에 수반되는 피로·주의력 장애 등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치료되지 않았던 만성비염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증상을 개선시키는 한약을 투여하고, 증상이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를 보하면서 치료하는 한약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으나 자주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폐나 기관지를 튼튼히 해주고 저항력을 높여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한약을 쓰게 됩니다. 또한 침술은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알레르기성 천식

천식은 호흡기가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기관지 수축이 생기는 질환인데, 숨릴 때 쌉쌉거린다든지 기침이 심하거나 호흡곤란 등이 있게 됩니다. 계절적으로 가을, 겨울에 많이 생기게 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기관지 점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하는데, 한방 천식치료의 주된 목적은 증상의 치료와 더불어서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환자의 생활요법

-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하고 최대한 자연산식을 한다
- 카펫이나 거터, 애완동물 등을 치유 먼지를 없애고 실내공기를 맑게 한다.

- 분노, 초조, 억울, 불안 등의 감정을 멀리하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다.
- 담배는 절대 금하고 술, 커피, 등의 기호식품도 자제한다.
- 임신 중에는 자극적인 음식물을 피해야 태열이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감기의 예방

-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한다.
- 적당한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저항력을 기른다.
- 기후에 맞게 옷을 입어 보온을 유지한다.
-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피하고 실내 환기를 자주 한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장기기증!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장기기증 신청 방법

- 1) 02)734-8050으로 전화상담 > 신청서류접수 > 등록
- 2) www.lisa.or.kr 접속 > 인터넷등록
- 3) 종로구 견지동 74-8 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 및 등록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상태에 처한 사람의 장기(심장, 신장, 간장, 폐장, 각막 등)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상태는 자발호흡이 불가능하고 소생기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흔히 혼동하는 식물인간과는 다릅니다. 뇌사판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뇌사자 본인이 생전 장기기증을 서약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동의할 시에 병원의 협조 하에 이루어집니다.

사후 각막기증

각막 기증이란 주로 시신경 기능을 살아있으나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자에게 시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한지 6시간이 안된 시신의 각막을 적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이식하면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각막기증은 선행, 근시, 난시와도 상관없이 80세까지도 기능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후 6시간이내에 빠른 연락을 해야만 각막이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후 시신기증

현재 각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용 시신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 시신기증이란 의학 발전을 위해 죽은 후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의학 발전은 병마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즉, 사후 시신기증은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커다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생전 골수기증

골수 기증은 백혈병이나 골수이식이 필요한 각종 암환자에게 새생명을 주는 고귀한 나눔의 골수기증은 만 35세 이하인 분으로 건강한 분이여야 하며, 헌혈을 한 번 정도 경험에 있어야 합니다. 골수기증은 골반뼈에서 골수액을 채취하며, 약 2일 정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동정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전 신장기증

우리 주변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신장 2개 중 하나를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신장기증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체 조직이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생전에 하는 기증이기 때문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환자 지원 및 후원 접수

생명 나눔실천회는 접수된 후원금을 백혈병이나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헌혈과 헌혈증도 함께 지원합니다. 아울러 생명나눔실천회가 주체가 되는 각종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는 삶과 생명 나누기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www.lisa.or.kr

후원금 접수 방법

- 예금주 : 생명나눔
- * 지동이체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 *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 006-01-0770-038
- 우체국 : 010579-0057699-11
- 한빛은행 : 010-073780-13-101
- 중소기업은행 : 024-037428-01-016
- 신한은행 : 324-05-007605
- 농협 : 053-17-001346
- 조흥은행 : 390-03-004664
- 지로번호 : 7623587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꼭 필요할 곳에서 값지게 쓰입니다.

02)734-8050

현목의 세상읽기

자신의 정체에 따른 선택을



정말 하기 싫은 얘기지만, 때가 때인지라, 정치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 없다. 며칠 뒤에 치러질 남한의 16대 대통령선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은 과거 민주화운동했던 사람 역시 기존의 정치인과 하등 다를바 없다는 편견만 듣게 또한 저간의 실정이다.

어쨌거나, 남한의 정치는 실로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대중의 운명을 가름하는 절대적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대중이 정치에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되겠다.

문제는 대중이 자신의 정체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늘상 선거때가 되어 대중 앞에 나서서 후보자의 면면을 들먹이며 그네들을 타는 것은 대중이 지켜야 할 자세가 아니다. 대중이 만들어 가야 하는 정권이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 질실하게 고민하고 그러한 세상이 되려면 어느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지난 87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당시 여론을 지도한다는 이들이 밝힌 성명을 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당시 지선, 진관, 범성 등 승려 223인의 명의로 발표된 김대중 지지 성명서(87년 12월 11일 개운사 회견)에는 '... 김대중후보의 승리는 곧 민중의 승리로 직결될 것이다. ... 그의 상대적 진보성에 대한 절대적 지지만이 눈앞에 닥친 선거국면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방

도일 뿐이다. ... 백기완후보는 운동의 순수성을 위장한 종파적 사고로 군부독재타도의 단합된 힘을 분열시키고 운동노선에 혼란을 야기시키며 결국 극우에 이익을 주어 민주세력 사이에 이간질만을 더 하고 있다. ...

이제 불교대중은 결연히 불교대중의 뜻을 모아 김대중후보의 승리를 불교자주 확보의 길로 쟁취해내고 불교자주화운동을 민족지주화운동으로 드높여가야 할 것이다. ...

'손에 손을 맞잡고 김대중후보의 승리를 민중의 승리로 쟁취하고 억압과 착취가 없는 대동과 해방의 새세상을 만들어가자.' 라고 주장하였다. 글썽 지 금도 그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옳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의 사고로는 대중이 바른 정권을 세울 수 없다.

올해도 기존 정당의 후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를 일컬어 상대적 진보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를 지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면서 순진한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극우정치인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는 억지도 부린다.

노동으로 살아가는 민중은 누구보다 진정한 민중의 대변자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신의 선택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민중의 힘이 모아지면 우리 세대에서 정말 민중의 권력이 바로 서는 현실을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정치이며 그런 정치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들이다.

대통령은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길줄 아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다만 자신들의 관심과 적극성에 비해 정치에 대해 대단히 말을 아끼고 삼가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좀 정치와는 거리를 둔 듯이 보일 뿐이다. 정치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걸로로는 아니네 하는 것일까? 대중의 그러한 모습은 아무래도 남한의 현대정치사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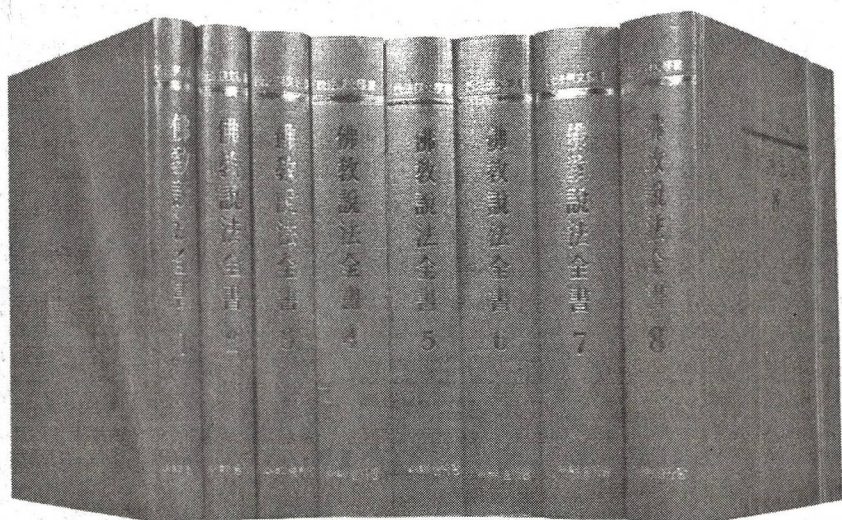
돌아보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직후 미국의 막강한 지원으로 남한만의 친미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부터 정치는 오염된 하천과 다를 바 없었다. 친일부역의 전력을 가진 자들이 어느새 애국인사로 둔갑하여 대중의 지도자로 나서고 그네들에 의해 정부가 세워지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정치가 행해지니 당연히 정치판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협잡 마당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한 판에 들어서는 사람들 역시 말로는 새로운 정치를 부르짖지만 '근목자축'이라 자신들도 여차피 더러워지리라는 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여 좀 편찮다 싶은 사람이 정치하려고 한다면 극구 만류하는게 일종의 세상 인심이다.

지금쯤은 생소할 말이 되었지만 철, 팔십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 일컬어 재야인사라고 하였다. 기존 정치권에 직접 몸담지 않으면서도 정치운동을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런데 시절이 바뀌면서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남한의 정치판이 뭔가 일신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썩 그렇지만은 아닌게 지금의 실정이다. 오히려 어떤 이들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13화-
이 집에서 제일 싼게 뭘니? 이금... 짬돌이. 만두요. 우띠! 비싼걸 시키지. 그럼, 그걸로 일인분만 주세요. 아뇨! 이인분 주세요. 네. 반인분이 되면 더 좋은데... 허허..오늘은 어떤일입니까? 다음 차례도 기억을 하시고. 비울때 가끔 이렇네요, 헤헤헤... 자,그럼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하던 공부의 진도를 나갈까요? "색불이공"을 할 차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새로 나온 "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처럼 아는게 나왔네. 하하하. 그럼, 여기서 오늘 새로 나온 "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색"은 범어 루파(Rupa)를 번역한 것이며 형상과 색채를 합한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일반적것을 말합니다. 이란, 내가 먹을 만두가 딱 한개 남았네. 마지막 만두를 내가 먹어 버리면 접시는 무가 되었...영? 자아- 만두성사께서 한마디 하시죠? 우윙

불교설법전서 8권 발간!

지난 14년 동안 스님들과 포교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바로 그 책, 불교설법전서!



- 4x6배판
1권(500쪽) 3만원
2권(593쪽) 4만원
3권(610쪽) 4만원
4권(796쪽) 4만원
5권(718쪽) 4만원
6권(800쪽) 5만원
7권(900쪽) 5만원
8권(790쪽) 5만원

창립14주년 기념 특별판매



행사·교리·불사·신행·시사 등 주제별로 구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원·도서출판술바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403호
Tel. (02)720-0824 Fax (02)722-8760
E-mail: sulpub@hananet.net

불교지도자의 역할과 그 수행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서

불교지도자론 I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키워도록 하는 지침서.
국제신문 이흥곤 기자
이상적 불교지도자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
현대불교 여성영 기자
한국불교의 지도자상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최초의 책
만남신문 신현진 기자
이 책은 불교리더십의 이론을 제공하면서, 포교현장의 지도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
불교이카데미 윤현수 이사장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임근동 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이하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위우고 싶노라면, 아름다운 미소와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쪼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본각 스님
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지은 진언을 우리말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불립문자"라는 말대로 문자 위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조연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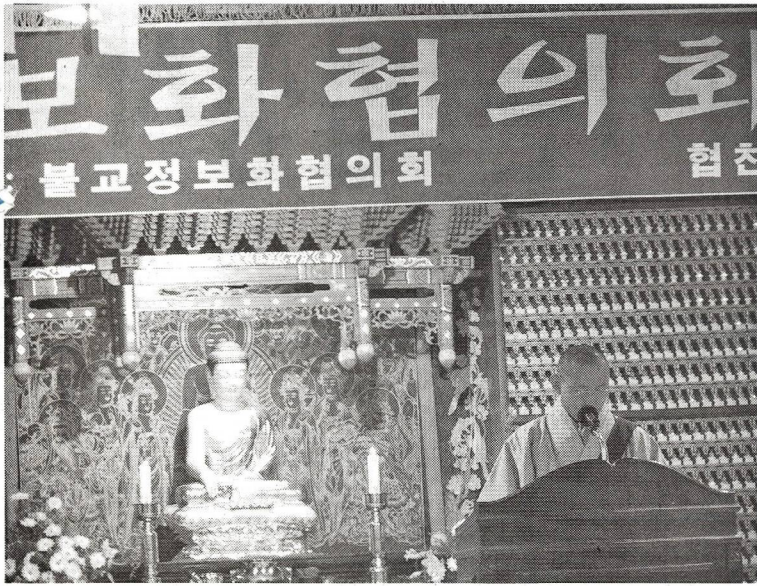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저자 임근동 (한국외대 인도어과 강사)

신국판 208쪽 값 10,000원

불교정보화협의회 창립센터

정보화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전개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가 지난 5일 서울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법회에서 회장 현성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정보화 시대에 불교가 적절히 대응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창립된 것"이라며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각종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법회는 태고종 운산총무원장 관음종 홍과총무원장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문화관공부운청하 주무실장 등 내빈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으며, 불교정보화협의회의 창립을 위해 힘써온 서

동석(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과 (주)KT 전병삼법인영업담당 및 최성기 애플웨어정보통신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불교정보화협의회는 불교정보화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통해 우리민족의 역사문화를 새로운 가치로 재창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서 불교계가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 △불교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 없이는 불교문화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은 점진적 발전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네 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하

었다.

이번 불교정보화협의회창립으로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불교의 정보화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기대된다.

티베트는 진정한 자치 원할뿐

세계의 변화속에 중국도 변화될것

달라이라미는 몽골방문에서 중국이 자신에 대해 "티베트의 독립을 구하고 있다"는 발언을 부정하고, "진정한 자치를 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나흘동안 몽골을 방문한 달라이라미는 약 200명의 학생들과 불교 승려들을 대상으로한 강연에 앞서 몽골 국립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 후 이같이 말했다.

"나는 독립을 추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를 원할 뿐입니다. 나는 그것이 중국과 티베트인 모두를 위해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미는 강연에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영어로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허심탄회하게 대답했고, 티베트를 위한 정치적 자치와 위대한 문화를 위해 호소했다.

이에 대해 왕푸강 주몽고중국대사관 대사는 "달라이 라미는 그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상관없이 정치적인 활동을 포함시킨다"며, "그는 독립에 관해 말하고 다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인 새로운 중국의 지도자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변화시킬지 아닐지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달라이 라미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어떠한 상황 이든 낙관적이다. 온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도 그 변화의 물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후보 불교관련 정책 비교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 TV가 실시한 제 16대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제기된 불교관련 정책을 각 후보별로 알아보았다.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불교관련 정책			
문화재 관련 기구	-문화재청장 차관급으로 승격 -국가문화유산처 설립	-문화재청 승격 -불교문화재 관련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위원은 50%이상 불교계 추천안 입안	-전통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 확대 승격
불교문화재 예산	-불교문화재 관리에 불교계 참여 확대 -예산 증액	-문화관광부 예산가운데 현재 1%(144억)의 불교예산을 3%까지 상향	-불교 예산을 3%로 올리고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정책을 개발
자연 및 수환경	-주인·불교계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 정부가 개발의지만 앞세워도 안되며, 환경을 지키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	-북한산 관동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부산 고속도로 노선 천성산 및 금정산 관동 문제 재검토	-북한산 관동도로 개설과 부산 고속도로의 금정산 철야사 관동문제에 반대
종교 문화 정책	-종교는 정치와 결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종교에 지원은 하지 않겠다. -인사 권한 근절	-불교계관련 각종 법령 재검비 -종교편향과 인적 편향성의 문제는 종교간의 갈등의 출발로 인식하고 시정	-국가 통제 불거하며 자율성 중시

천태종립 금강대학 개교 및 준공

오랜 숙원사업 30년만에 성취

천태종 금강대학교(총장 박봉식)가 지난 7일 논산시 상월면 금강대학교 운동장에서 교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천태종 종정 김도용 스님과 전운덕총무원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2만여명이 동참했다.

개교 및 준공대이프 절단으로 시작된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고불문, 상월원각조사 범어봉독, 교기 이상 등으로 이어졌다.

박봉식 총장은 개교사를 통해 "산업혁명이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부의 축적이 세계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며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나갈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운덕 총무원장은 기념사에서 "금강대학교의 개교는 천태종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일로 천태종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일"이라며 "금강대 개교를 계기로 불교학의 정립을 통해 천태종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종단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지자"고 말했다.

금강대학교는, 불교문화학부, 통역학부, 사회과학부등 3개 학부로 구성되어 내년 3월 1일 개교예정이다.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불사



진각종은 11일 서울 탑주심인당, 12일 대구 회락심인당 삼매야제단에서 진기 56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 불사를 봉행했다.

해일 총인이 증명아사리, 도흔 종사가 전개아사리, 일정 종사가 갈마아사리, 지광 종사가 교수아사리로 열린 이번 관정불사에서는 서울지역 142명, 대구지역에서 292명등 총 434명이 보살십선계를 받았다.

종단협의회 회원종단 25개 줄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25일 서울 하림각에서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일승종을 회원 종단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의회의 소속 종단은 25개로 줄게 됐다. 종단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18일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일승종이 10월 말까지 체납정기회비, 사업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단협 정관에 의거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종단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 10월 28~29일 서울에서 열린 제5회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종단협의회의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보·보물 64%가 불교문화재

우리나라 국보, 보물의 64%가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 목록>(이하 지정 목록)에서 밝혀졌다.

<지정 목록>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현재 지정 문화재 8,003점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2,632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제외한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시·도유형문화재)만 보면 전체 3,613점 가운데 55%(1,993점)가 불교문화재다. 또한 불교문화재는 국보의 56%(303점 중 170점), 보물의 66%(1,315점 중 871점)를 차지한다.

유형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의 소유별 현황을 보면, 조계종이 1,033점으로 51%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유형문화재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태고·천태종 등 다른 종단이 소유한 63점을 합하면 1,096점으로, 유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54%만이 불교계 소유다.

불교 NGO 활동 활발하게 진행

네팔 포카라, 베그나스 지역 학교 설립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등 불교계 NGO들이 인도 등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네팔에 학교를 세운다.

북한, 르완다 등을 지원해온 한국 불교기아도움기구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이 있는 네팔에 학교 건립을 결정, 최근 현장 답사를 마치고 부지 선정 및 지원 액수를 공개했다. 네팔 포카라(POKHARA) 지역 2천여 평에 1층 규모 6개 교실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부지구입 비용 1만 5천 달러, 공사비용 2만 달러 등 총 예산 3만 5천 달러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네팔 베그나스(BEGNAS) 지역에도 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현지 법인 설립 후인 내년 2~3월 경에 시작하고 책임실무자도 파견한다.

여성美 한의원美



안녕하세요? 여성美 한의원 원장 조선화입니다.

그동안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이제는 여성질환에 관한 전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연구개발하며 노력하는 모습과 깊이있는 진료를 위해 새로운 장소에서 여성만을 위한 한방클리닉 "여성美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성병(부인병)전문 한의원 개원을 계기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진단 및 치료프로그램(좌약, 좌훈욕, 생기혈탕, 온열침, 비만침, 이침 등)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새롭게 개원하는 "여성美 한의원"에서 항상 편안하고 쾌적한 진료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평 일 : 오전 9시2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여성전문 한방클리닉 여성미한의원
대표원장 조선화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세요.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02)552-1080 팩스: (02)552-1082

염주가득 사랑가득 정진으로 서원 성취하는 법성사



“마음이 항상 밝고 마음에 분별함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부처님에게 한발 다가 설수 있는 거야. 한발 다가서는데 4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어. 그런데도 아직 뒷발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 뒷발을 거둬야 정말 한걸음 가는 것인데...”

가을이라는 단어는 참 쓸쓸해 보인다. 막연히 우리에게 주는 가을의 느낌이 감성을 자극하지만 감성이 체 피기도 전에 겨울이라는 단어가 가을을 삼켜버리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해의 길이가 짧아지지만 하는 어둑한 법당에는 노스승님과 불공하는 여러 보살들이 정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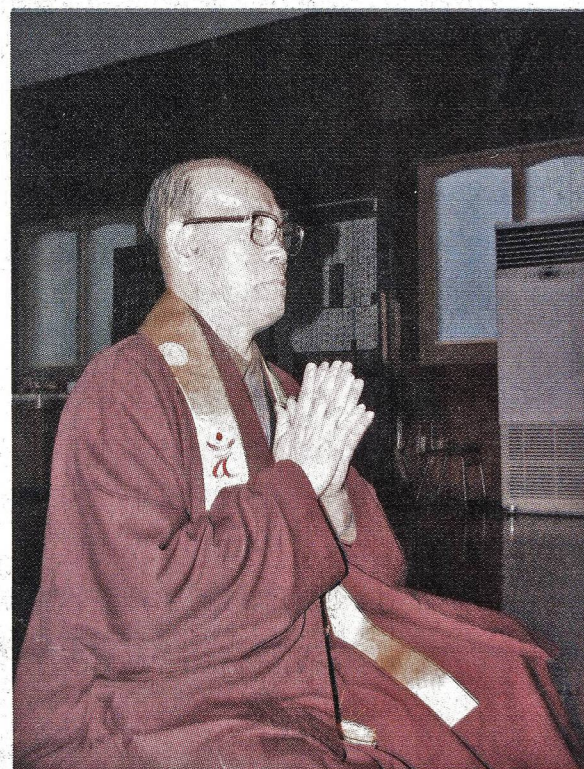
노스승열에는 10여년을 스승님에게 공부하고 있는 차영희 보살이 같이 하고 있다. 차 한잔을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담소가 깊어지고 어느덧 노스승님의 옛날이야기로 이어진다.

불교는 간단히 因果의 법칙이다.

몸은 늙어 예전 같지 않지만 지극히 내린 눈가에 수행의 공덕이 가득하고 부릅뜬 두 눈에 광채가 사람을 긴장하게 한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하나하나 더듬듯 40여년의 진언수행의 이력들이 노스승님의 주름살을 타고 스쳐 지나간다.

첫 말씀이 인과(因果)의 법칙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우리가 악을 지으면 그 악은 다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선을 지으면 언젠가는 그 선이 우리에게 다시 옵니다. 그럼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공때 하는 심선회향입니다. 중생들은 열 가지 일로 선을 짓기도 하고, 또 열 가지 일로 하여 악을 짓기도 합니다.

열 가지 일이란 무엇이면 행동에 관한 세 가지, 말에 관한 네 가지, 마음에 관한 것 세 가지입니다. 몸에 관한 세 가지란 살(殺)·도(盜)·음(淫)이요, 말에 관한 네 가지란 양설(兩舌)·악구(惡口)·망어(妄語)·기어(綺語)요, 마음에 관한 세 가지란 탐(貪)·진(瞋)·치(癡)입니다. 이런 열 가지 일은 성도(聖道)를 따르지 않는 일이라 십악(十惡)이라 하고, 이런 악을 범하지 않는 것을 십선행(十善行)이라 합니다. 열 마나 명쾌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과거세부터 수없이 지은業에 의해 선과 악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나(我)라 생각해서 身業을 일으키고 이 말을 나(我)라 생각하므로 口業을 일으키고 이 마음이 나(我)라 생각하여 意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데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헛된 망상이 헛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는 간단합니다. 헛된 망상과 마음을 진실된 진리의 마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지종의 불공은 마음불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공은 我相을 가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나를 굽히고 下心하는 것이 부처님에게 굽히는 것이요, 부처님의 진리에 수순하는 것이요, 우주사만관상에 굽히는 것입니다. 굽히면 내가 보입니다. 굽히면 마음자리가 보입니다.”



인과에 대한 시각화 스승님의 말씀이 한참 계속되고 있을 때 밖에서 큰소리가 들렸다. “왜 이제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사실 몇 시에 간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부산 도착시간이 점심때쯤 될 것이라 예상을 하였다. 보다. 그러나 점심공양시간을 막 지나고 도착하였으니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들었다.

천진동자 같은 하정스승님

정사님의 손에 검정봉투가 보인다. 내일 부산 경남 교구회의가 이곳 법성사에서 있다하여 교구회의때 사용할 물건을

사오셨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빼죽 나온 물건은 다름 아닌 덧버선을 사왔다.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 “전수님 추운 날씨에 불공하는데 줄려고 사왔지”하며 함박웃음을 웃는다. 곁에 있던 차영희 보살이 “정사님 저도 불공하는데 저도 하나 주시죠?” 하는데 “안돼 우리 전수님만 즐겨야 하신다.” 물론 농담이지만 천진한 아기의 마음처럼 순수함을 보였다.

사실 정사님은 큰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총지종단을 위해 커다란 족적을 남기실 만큼 수행과 실천을 겸비하신 분이였다. 그런 수행력이 뒷받침 되어서였는지 큰 사고 이후에도 남들과 다름없이, 아니 남들보다 더욱 철저한 계행과 실천을 행하니 어느 대중들이 감복받지 않으며 우러러 보지 않겠는가.

조용히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끈다. 방에는 염주가 가득하다. 작은 스텐드의 형광등 밑에 의지한채 염주 꿰는 실과 드릴, 땀저, 닛바등 염주 만들때 공구들과 여러 가지 작은 전자제품들로 방이 가득하다.

이것은 금강염주, 소나무로 만든 것, 대추나무로 만든 것, 울무로 만든 것, 이것은 108염주, 이것은 54염주, 이것은 단주, 차량염주 하며 지랑과 뿌듯함이 열굴 가득하다.

사실 우리종단의 스승님들이 사용하는 염주는 대부분 하정정사님이 만들어 보시한 것이라 한다. 큰 덩치에 어울리는 굵은 손에서 섬세한 염주와 매듭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난다.

마지막 한 올 한 매듭에 모든 정성을 들여 부처님의 진리를 엮어가는 모습은 깊은 산



속에서 조용히 수행하는 고승의 모습처럼 보인다. 그리고 조용히 쪽지를 부끄럽게 내놓는다. 스승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짧은 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 허물 고치고자 하면 정신 맑은 새벽불공해서 하루하루 생활의 행복을 찾아야 하며 주야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약속된다. 모든 선과 고는 정진으로 이뤄지며 극복되나니 사람이므로 태어났으면 生死를 겪고 부처님 가르침에 정진함이 어떤지” 대략 이런 내용이다. “生死를 겪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 갈려고 노력은 하였는지 스스로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리고 스승님의 통 큰 생각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모두가 이런 생각과 발심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고지식한 스승님 그러나?

두터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꾸 옷깃을 여미게 된다. 바깥의 날씨가 춥지도 않은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고지식한 스승님의 덕분이다. “중단 돈 아깝게 생각하여 보일러 불을 지피지 않고 속된 말로 ‘완만추위는 몸으로 때운다’고 하신다. 고회를 바라보는 연세인데 절약해야 한다며 불을 지피지 않으니 한편으로는 딱 막힌 스승님이다.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고지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좁은 소견으로 절약도 좋지만, 부처님 돈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하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몸이라도 추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난후 나의 좁은 생각이 어리석음을 곧바로 깨닫게 해주었다.”

“조금 춥게 지내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좋습니다. 물론 몸에 큰 해가 없는 한도에서 말입니다. 따뜻하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요령이 생겨납니다. 배가 부르면 조름이라는 고약한 마가 옵니다. 약간 고파야 정신이 맑아지는 것처럼 사람은 물질에 대해 약간 모자람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은 풍족한 물질속에서 살다보니 정신적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정신적 빈곤은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온갖 부도덕한 문제의 발생은 물질의 풍요에서 나오며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이 근원입니다. 수행자는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부족하게 생활하여 항상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생활하였던 일상생활에서 물질에 갇혀 지낸 욕망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일어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수행으로 삼고 지낸 스승님에 대해 존경심과 경의심이 든다. 스승님은 새벽불공에 시간 지키는 것도 철두철미하다. 그래서 인지 법성사 보살중에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정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박복덕보살, 이소현

하정정사님과 시각화 전수님은?

실천과 정진을 빼놓고 스승님을 이야기 할 수 없다. 그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실천 수행자이자 인과법을 현실에 맞게 실천하는 수행자이다. 스승님의 수행의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365일 하루도 어김없이 사본 정진에서 나온다고 보살들은 귀소리를 해준다.

스승님은 젊었을때 밀교의 오묘한 진리를 만났다. 몸이 무척 아팠던 스승님은 사원에서 불공을 하면 마음이 무척 편하지만 법당문을 한발짝이라도 나가면 마음이 몸이 편치 않았다 한다. 그래서 내 몸 해탈과 마음공부에 발심을 하고 전력으로 육자진언과 부처님에게 운몽을 던지며 불공에 매달렸다. 병원에서

삶과 죽음을 놓고

부처님께 귀의

도 포기한 병마는 세 번의 죽을 고비를 회사법으로 막아내고 마침내 꿈인 듯 현실인 듯 관음보살을 만나면서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원장대성사원을 만나 총지종 창종의 주역이 되었다. 복지화 스승님, 정각원 스승님등 총지종의 큰 스승님들과 함께 정통밀교의 큰 서원을 세우며 밀양, 경주, 부산에서 불같은 교화사업을 이끌었다. 스승의 길을 걸으라는 원정님의 말씀에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키는 스승의 재목은 못됩니다”라고 하였으나 원장대성사원은 “진리의 세계는 학문으로 하는게 아니며 진리의 세계는 배움의 많고 적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진실된 마음과 사람의 됴됨이가 부처님과 통하면 세속의 문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진리속에 있으며 그대가 세속적이든 세속적이지 않든 모든 뜻을 이루고자 하면 힘난하지만 이 길을 가야한다.”라는 말씀에 죽비를 잡고 40여년의 수행의 길을 걸었다.

보살, 김귀임 보살, 김옥순보살, 김정순 보살, 이말남 보살, 차영희 보살, 정복여 보살, 이말악 보살등 많은 고도들이 스승님과 같이 새벽정진을 실천하고 있다.

맛보지 않은 자에게 맛을 이야기 할 수 없다.

시각화 전수님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다. “부처님전에 용맹으로 정진하고 나를 버리면 나와 부처님이 하나로 됩니다. 그리고 물리가 터집니다. 물리가 터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라 하였습니다. 그럼 지심으로 부처님의 법을 갈구하며 수행정진 하면 방편이 보입니다.

즉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자 수행정진이 제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방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영가천도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가천도가 제일이 아니라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지심으로 들이는 마음공부가 제일입니다.

그 다음이 복을 구하는 기복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한데 어찌 부처님에게 ‘영가를 천도하여 사일 잘 되게 해주소서, 잘살게 해주소서, 혹은 아들 잘되게 해주소서’ 등 여러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복을 빌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을 빌기 이전에 비는 이의 마음자리와 마음 청정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해보니 부처님의 묘한 진리의 맛을 조금이나마 느낍니다. 맛보지 않은 자에게 맛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맛을 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해를 하여 영가천도만 중요시 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골의 맛을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단골의 맛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꿀을 먹어봐야 알지요.



법성사 主 国民은행 부산역 부산시 동구 초량 2동 422-3 ☎ 051)468-7164